

페타이어 재생공장 허가 反對 주민반발

영송,영평 주민 200여명 시청 앞 허가취소시위 포천시장, 법에 의한 허가 주민 찬반과 관계없다

영송면 영송리, 영평리 주민 200여명은 지난 22일 포천시청 앞에서 환경오염 시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다시 페타이어 가공업체를 허가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3시간 동안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주민들은 "영송리,영평리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축산분뇨처리장 2곳, 음식물 비료화 공장인 조원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각종 오염배출 업체인 페타이어 재생공장을 허가한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조원산업을 허가할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장을 가동하기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포천시는 조원산업에 대한 환경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포천시장에게 조원산업 환경단속과 주민들 물러 허가한 페타이어 재생공장 허가를 취소하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

했다. 시위 40여분만에 가진 포천시장과 면담에서 이재하 영송리 이장은 "주민들은 각종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냄새와 오염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페타이어 공장허가를 내줘 주민들은 악감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함께 참석한 주민은 "페타이어 공장을 허가 할 때는 주민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막상 공장이 가동되면 피해발생이 불 보듯이 환한 상황이다"며 "영평 주민들은 분뇨처리장을 비롯한 조원산업, 축산분뇨처리장 등으로 인해 영송리가 나후되어 있는데 페타이어 공장을 허가한 것은 시가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욱 영송면 이장협의회장은 "포천시 혐오시설 대다수가 영송면에 편중되어 있는데 시청 담당자들은 심사숙고 해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분뇨처리장과 축산처리장 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대표로 감시단을 구성해 줄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한편 박운국 포천시장은 "페타이어



영송면 영송,영평리 주민 200여명은 기존 환경오염 배출시설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다시 시가 페타이어 재생공장을 허가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 공장을 허가한 것은 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주민들의 찬반과는 관계없다"고 말하고 "기

존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조원산업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확충하든지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속가능한 미래! 참여의 힘으로!"

연민속씨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슬로건 당선

오는 9월 22일부터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7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를 위한 슬로건 및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맑고푸른포천의 제21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민속(33·사진) 씨가 "지속가능한 미래! 참여의 힘으로!"란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지난날 16일

부터 30일까지 전국지방의제21 참여위원 및 활동가, 참여단체, 담당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슬로건 부문에는 29명이 출품, 20개의 본선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연민속 간사는 "지난해 슬로건 '성찰과 창조! 지속가능한 미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슬로건을



창안해 응모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연간사의 슬로건은 오는 9월 22일 전국대회 개최지인 창원에서 시상될 예정이며,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게 된다.

연 간사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맑고푸른포천의제21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국립수목원 10월까지 관람시간 1시간 연장

국립수목원은 방문객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람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하절기 동안 실시되는 1시간 연장 안은 8자녀 이상 가족이 수목원을 방문할 경우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입장료(성인 1천원, 어린이 500원)를 면제해 주며 학생 신분인 어린이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요금(700원) 혜택이 주어지고 65세 이상 노인인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방문을 위해서는 방문 5일전 전화(031-540-2000)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lants.go.kr:9300)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립수목원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방문객의 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찾아가는이동방역장비 수리팀' 인기

포천시 보건소가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방역장비 수리팀'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보건위생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방역장비 사용세대가 많아지고 주민방역봉사단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역장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간단한 고장임에도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전문수리업체에 의뢰할 경우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고장난 방역장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로 방역소독이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방역장비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개 반 3명으로 구성된 이 이동방역장비 수리팀은 지난 4월 전문방역장비업체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후, 현재까지 43대의 고장난 방역장비를 수리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포천시 보건소는 말라리아 등 여름철 전염병예방을 위해 보건소방역반과 새마을자율방역단 등 총 40개의 방역단을 구성하고 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36

소흘읍 무림리 이장 류정열

"시골에서 이제는 살기 좋은 전원마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는 지리적으로 소흘읍 남서쪽에 위치, 의정부와 접경해 있어 주민들의 의식 또한 도시적이지만, 전형적인 농촌마을 전원마을의 분위기가 베어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포천의 경계인 축석령을 지나 광릉수목원방향으로 진입, 5분정도 지나 다르고개를 지나면 마을 입구가 나타난다.

지난 1999년 농촌환경개선사업시범마을로 선정돼 깨끗하며 전원적인 무림리 류정열(51) 이장으로부터 마을에 대해 들었다. 류 이장은 2002년 임명된 4년차 이장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으로 알려져 있다.

무림리는 중말, 중전(안말), 송정리(건너말)의 3개 마을이 모여 구성됐다. 총 3개반의 이 마을은 현재 130여세대 4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 미루어 마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류 이장은 "마을에서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정도이고 나머지는 외부 유입인구로 인해, 의정부등 도시에 직장을 두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아 인구의 유동이 심한 편이다"고 말했다. 이 마을은 50%이상의 주민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30% 정도만이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주 생산물은 포도(농지면적의 1/10), 쌀(농지면적의 1/10)으로 대부분 벼농사를 짓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수입은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 마을에는 류 이장을 중심으로 노인회와 부녀회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회의 경우 현재 6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농사일과 소일 등을 하고 있으며, 마을의 경조사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의 구성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류 이장은 "대다수의 농촌마을처럼 청년회를 구성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 마을은 매년 정월초에 청소년대회가 개최되며 향어를 신용협동조합의 주도로 경로잔치가 마련되고 있다.

류 이장은 "1974년부터 YMCA 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자체신용협동조합이 있어 그곳에서 생긴 이익으로 마을 잔치를 개최했다"며



류정열 이장 소흘읍 무림리

"최근 은행의 발달과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협동조합의 부실로 인해 점진적으로 재산을 줄여간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론이다"고 말했다.

1999년 농촌환경개선사업시범마을로 선정돼 정비된 마을은 비교적 깨끗한 분위기다.

이 시범마을 지정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진입로 조경수 식재, 공동쉼터 조성, 체육놀이시설, 생활건강실, 농가유실수 심기 등 농촌의 문화적 혜택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류 이장은 이 사업으로 마을의 분위기가 한층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해 주민 요구사항을 말했다. "마을회관이 들어선 마을 공동부지는 무려 450평으로 마을회관과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데,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미관상 도색작업이 필요한 만큼 담당 관계자들이 이를 경청해줄 바란다"고 밝혔다.

어느 마을보다도 단합이 잘 되는 것을 알려진 무림리에는 최근 인근 군부대의 화약고 이전설치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류 이장은 "송정리에 위치한 탄약고는 198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확장이전한다는 조치가 발표된 이후 주민들과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가의 사업인 만큼 주민들도 이해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규제 등이 형평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림리 주민들은 현재 660m로 접근이 제한된 탄약고와의 거리를 300m로 좁혀달라는 등 생계와 관련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토뉴스



한탄강 상류, 물고기 떼죽음

포천시 관인면 방정리와 철원군 장흥리 경계 대교천 상류지점에서 지난 23일 오전 민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대교천 주변 지역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포천시와 철원군 경계지역 대교천 상류지점에서 민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된

것을 발견해 포천시와 철원군에 신고했다.

시는 철원군 장흥리 지역 축산농가에서 오전 8시경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 철원군에 철저한 원인규명을 요청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60일간의 프랑스여행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프랑스 문화에 빠져-복사!

- 김미로운 선물의 밤
 - 원형이여 함께하는 노랑키예의 낭만
- 김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왕인과 크레페의 멋진 만남
-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어이고 하는 연극은 어떻게? 연극수업과 퍼포먼스

여러날은 프랑스에서~

-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 프랑스의 음악여행
 - 연습과 공연을 통해 규칙적인 학습원칙 깨달음
- 완상의 불꽃놀이
 - 자녀의 선물이 하나씩은 즐기는 이랜드의 추억
- 피자 도우 Show!
 - 피자 반죽을 이용한 피자와 피자 (Mr.Pizza) 드림의 흥행

즐거움에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폴미르드 카페 이벤트
 - 커피와 디저트, 파티스리엔
 - 살아 움직이는 프랑스 마시
- 한밤의 아인스월드
 - 노랑키예에서 즐기는 로맨틱 파티와 파티스리엔
 - 프랑스의 파티스리엔
- 포토존 이벤트
 - 프랑스 패션스타에 따라 스타일링
 - 패션쇼와 패션쇼가 되어보세요
 - 세계 유명 건축물을 배경으로 국가별 테마의 일대 사진

사진찍고-파리까지!

- 아인스월드의 즐거움 추억을 사진에 담아 직접파리로 떠나는 신나는 사진 콘테스트
- !프랑스 7박8일 여행권!! (카탈과 디지털 카메라, 무료입장권 등)

후원: PARIS VISITE, KB, 카드, Mr.Pizza

www.aiinsworld.com